

# 한국전쟁 당시 중국개입의 예측실패에 관한 연구

- 미국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李 鍾 判\* · 小柳順一\*\*

1. 서 론
2. 극동군사령부의 조직과 정보기능
3. 극동에서의 HUMINT와 COMINT 기관
4. 극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
5. 극동군사령부의 정세판단
6. 결론을 대신하여

## 1. 서 론

한국전쟁 당시 중국의 참전에 관한 많은 징후가 포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공군의 개입을 예측하지 못했다. 1950년 당시, 맥아더도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자도 중공군의 개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사태를 시사하는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정보의 처리 및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일어난 '정보의 실패'<sup>1)</sup>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참전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6월 25일의 북한의 남침예측 실패에 이은 두 번째의 정보실패였다. 이러한 실패가 NSC(National Security Committee) 및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를 설치하여 정보조직을 강화시킨 트루만 대통령 정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정보실패로 인하여 한국전쟁은 '새로운 전쟁'으로 전환되고 유엔군이 38선 이남으로 철수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미국이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예측에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해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 육군전사에서는 "유엔군 및 미국정부의 많은 정보조직 가운데 극동군사령부가 중국의 참전목적과 능력판단에 관한 결정적인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유엔군의 행동방침을 크게 좌우했다"<sup>2)</sup>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콜린스(Collins J. Lawton)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의도와 능력에 관한 정보의 90%는 극동군사령부에서 보고된 것"<sup>3)</sup>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정부까지의 정보전달은 두 개의 경로가 있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미국정부에 직접 연결되는 회선, 또 하나는 한반도에서 도쿄의 극동군사령부를 거쳐 미국정부로 연결되는 회선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가 보고된 회선은 후자였다. 이 때문에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극동군사령부를 경유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중공군개입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미 육·해·공군의 정보부대, CIA, 국무성 등 모든 정보기구의 정보실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도 중국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했던 극동군사령부가 정보실

1) Benno Wasserman, "The Failure of Intelligence prediction", *Political Studies*, Vol. 8, No. 2, June 1960, p. 157.

2)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Office of the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1, p. 757.

3) 1951년 5월 4일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이 미상원군사외교합동위원회에서 증언.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일본 방위대학교 교수

패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보의 실질적인 정보생산사이며, 또 한반도의 현지로부터 미국정부 사이의 정보경로에 위치하여 각종 정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극동군사령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극동군사령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보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일관했다. 말하자면 맥아더의 교만이나 중국경시, 혹은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장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 소장의 독단적인 성격 등을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극동군사령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집단사고(group think)모델<sup>4)</sup>로서 설명한 리보(Richard Ned Lebow)는 맥아더를 중심으로 하는 응집성이 강한 참모집단이 “중국이 참전한다 해도 미국은 결코 지지 않는다”는 불패신화를 갖고 있어, 그 결과 워싱턴에 전하는 정보가 왜곡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sup>5)</sup>

이렇게 맥아더나 윌로비 소장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해석은 실패원인의 일면을 파악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을 오판하게 된 미국의 정보조직의 특성이나 결함에 관점을 두는 것이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실패의 재발을 방지하는데도 유익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소홀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누가 실패를 범했는가’가 아니고, ‘왜 실패가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극동군사령부가 어떠한 점에서 미국의 정보실패와 관련되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극동군사령부 정보조직의 특성과 활동실태, 조직구조에서 정보의 전달경로 문제, 극동군사

4) 응집성이 강한 조직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가끔 전원일치의 환상, 혹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불리한 정보로부터 조직을 방어하려는 자기방어기능의 작동 등 병리현상이 조직 내 발생하여 구성원들은 다른 방책에 비판이나 평가, 도덕적으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없다(Irving L. Janis and Leon Mann, *Decision Making: A Psychological Analysis of Conflict, Choice, and Commitment*, Free Press, 1977).

5) Richard Ned Lebow, *Between Peace and War: the Nature of International Crisi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pp. 157, 164.

령부와 미국정부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당시의 정보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정보예측은 언제나 한계가 따른다는 점도 고려하여 접근하면서,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처리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직의 결함은 예측실패의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나 우수한 정보조직을 갖춘 미국도 때때로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사드라는 우수한 정보조직을 갖춘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군의 공격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례(제4차 중동전쟁, 1973년 10월 6일 발발), 또 아르헨티나가 일찍부터 포클랜드 점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고도 그 판단을 잘못하여 전쟁으로 확대되고 말았던 정보조직의 사례(포클랜드 분쟁, 1982년 4월 2일 발발)가 그러하다. 여기서의 연구접근은 특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맹이 정보를 선별하여 평가해야 할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처리와 예측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기간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군사개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서 중공군의 제1차 공세까지 약 2개월간으로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극동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수집, 분석된 정보내용 및 그 흐름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국립문서보관소(매릴랜드) 소장의 미발간 사료인 극동군사령부(FEC) G-2의 ‘정보요약’(DIS: Far East Command, Daily Intelligence Summary)<sup>6)</sup>과 ‘역사일지’(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Historical Report, 1 January 31 October 1950<sup>7)</sup>), 미8군의 ‘정기정보보고’(Eighth US. Army Command, Eighth Army Periodic Intelligence Report<sup>8)</sup>)와 ‘포로심문조서’(Eighth United States

6) RG 338, Modern Military Records, National Archives Center, Suitland, Maryland (이하 MMR/NA).

7) RG 407, MMR/NA.

8) RG 407, MMR/NA.

Army Korea,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sup>9)</sup>), 그 외 극동군사령부의 각종 지시·명령서 등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CIA의 '세계정세월간보'(CIA, Review of the World Situation, August, November 1950<sup>10)</sup>)도 미국의 정보판단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활용하였다.

또 맥아더 기념관(버지니아주) 소장의 미발간사료 '텔레콘'(TELECON, 1 September, 31 November 1951<sup>11)</sup>)을 이용하여 극동군사령부와 미국정부와의 정보흐름을 밝혔다.

공간자료로서는 '국무성 외교문서집'(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VII, Korea), 육해공군의 전사, 특히 육군성의 '주한미군사고문단'(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y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1962) 및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1961),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참모본부사-합동참모본부와 국가정책'(James F. Schnable and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Chiefs of Staff and National Policy, Vol. III, The Korean War: 1979)을 주로 인용하였다.

정보관계의 참고자료로서 극동군사령부와 그 통제하에 있는 정보부대의 정보활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미 육군교범 '전투정보'(U.S. Army Field Manual 30-5, Combat Intelligence: 1956) 등을 참조하였다.

나아가 트루만 대통령,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 콜린스 육군참모총장 등 당시의 정책결정에 관여했던 자들의 회고록을 활용하여 상기의 자료를 보완하였다.

## 2. 극동군사령부의 조직과 정보기능

### (1) 최고사령관과 참모부

#### 1) 맥아더의 권한과 정보책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 미 육군 참모총장은 1945년 8월 13일, 미국과 영국, 중국, 소련 등 주요연합국의 결정에 근거하여 미태평양 육군최고사령관(AFPAC, 뒤에는 CINCF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Command, 미 극동군총사령관)인 맥아더를 연합군최고사령관(SCAP: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에 임명했다. 또한 맥아더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7월 7일, 유엔군사령관(CINCUNC: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에도 임명되었다.

그는 연합군최고사령관, 미 태평양 육군최고사령관(이하, 미 극동군사령관이라고 칭한다), 유엔군 사령관 등 3개의 직책을 겸임함으로써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sup>12)</sup> 연합군최고사령관으로서 일본을 주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미극동군사령관으로서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 육·해·공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으로서 미군, 한국군 및 유엔군에 참가한 각국 군대에 대한 통제권한을 지니게 되었다.<sup>13)</sup> 이러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맥아더는 극동에서의 정보를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12) 竹前榮治監修, 『GHQ日本占領史2—占領管理の体制』,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p. 2(GHQ, SCAP&FEC, Administration of the Occupation: 1945 through July 1951).

13) 豊島哲彦, 『朝鮮戦争—民族の受難と國際政治』, 明石書店, 1999, pp. 84-85(William W.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9) RG 338, MMR/NA.

10) RG 338, MMR/NA.

11) RG 9, MMA/NV.

맥아더의 정보책임구역은 미육군특별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다.<sup>14)</sup> 제1항에서, 극동군사령관은 일본 및 유엔 신탁통치하에 있는 일본의 섬 및 필리핀의 섬을 제외한 모든 극동지역에 대하여 정보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2항에서, 그 외에 극동군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데 전략적 가치가 인정되면 그 지역도 정보책임범위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와 필리핀도 포함되어 있었다. 육군규칙으로 판단하면, 한국전쟁 이전 한반도에 대한 정보우선순위는 군정을 받고 있었던 일본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맥아더는 3개의 직책을 겸임하고 있어, 때로는 3개의 직책에 따라서 정보책임도 달랐다. 유엔군사령관로서는 한반도가 주목의 대상이었다면 극동군사령관의 지위에서는 정보책임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했다. 이것은 “미국은 대만, 그 외 어떠한 중국영토에 대해서도 점령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개입도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정부는 중국내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대만의 국부군에 군사지원이나 조언을 할 생각은 없다”<sup>15)</sup>고 했던 지금까지의 대만문제 불개입 정책을 크게 전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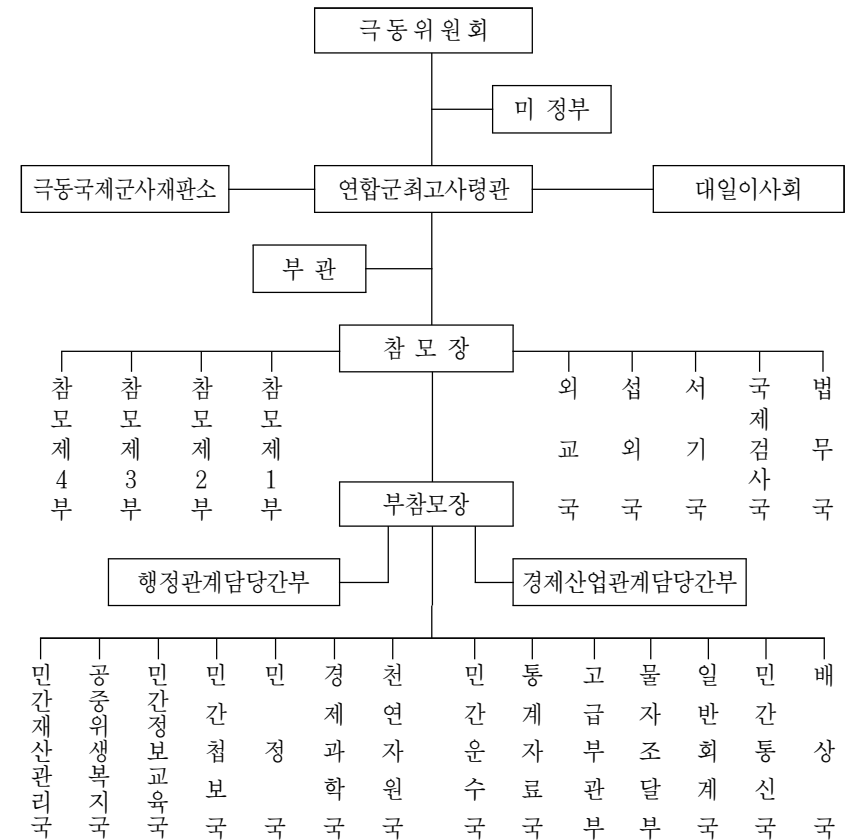
2)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

연합군최고사령관 및 미국동군사령관을 보좌하는 참모부 조직은 [그림 1]과 같이 일반참모부(General Staff Section)와 특별참모부(Special Staff Section)로 편성되어 있었다.

특별참모부는 일본 점령정책을 담당하는 민생국, 민사국, 민간재산관리국 등으로 편성되어 연합군최고사령부로서 기능했다. 또 일반참모부는 미국동

14) The U.S. Special Regulation 380-305-5, Military Security, Army Intelligence Instructions, 28 April 1950.  
 15) U.S.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XXII, 9 January 1950, p. 79.

[그림 1] 연합군최고사령부, 미국동군사령부의 조직도



출처 : 竹前榮治 監수, 『GHQ日本占領史1-GHQ日本占領史 序説』, 日本圖書センター, 1996, p. 13.

군의 참모기능을 하였고 이것은 제1부(G-1)에서 제4부(G-4)까지 4개부서로 편성되었다.<sup>16)</sup> 일본 점령관리에서 군사 이외의 부문을 담당하는 특별참모는 군사조직인 극동군사령부 일반참모가 일부를 겸임하였기 때문에 2개

16) 竹前, 앞의 책, pp.16-17.

의 사령부는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GHQ의 이중구조<sup>17)</sup>라 한다. 또 맥아더는 유엔군사령관에도 임명되었는데, 유엔군사령부의 참모는 극동군사령부의 일반참모부가 겸임하고 있어, 형식으로는 새로운 사령부가 창설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중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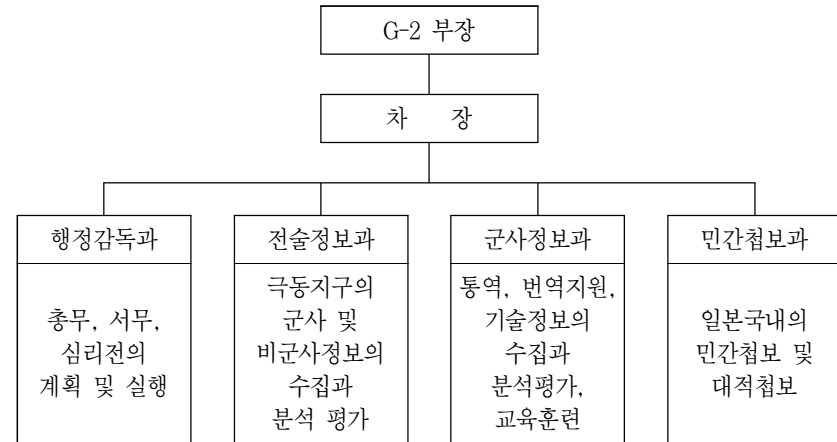
이들 참모부에서 정보업무는 민간첩보국과 제2부(FEC G-2)에서 담당하였다. 민간첩보국은 일본국내 민간첩보와 對敵첩보를 실시하고, FEC G-2는 중국을 비롯한 극동의 모든 정보활동을 통제했다.<sup>18)</sup>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FEC G-2를 개편하여 극동군사령부의 일반참모부 제3부(작전담당)와의 합동작전실을 설치, 미 육·해·공군과의 합동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능력의 강화에 노력했다.<sup>19)</sup>

## (2) FEC G-2 정보활동의 역할

### 1) FEC G-2의 권한과 편성

FEC G-2는 극동에서의 전술정보를 담당하고 군사 및 비군사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조정(coordinate) 권한을 가지고,<sup>20)</sup> 극동에 전개되어 있는 육·해·공군 및 한국군의 정보활동에 개입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31일 시점의 FEC G-2편성은 [그림 2]와 같이 행정감독과(Administrative Executive Group), 전술정보과(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그림 2] FEC G-2 편성(1950년 10월 31일)



출처 :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Historical Report(Part 1), 1 January 31 October 1950, Plate 1: G-2 Section, RG 407, MMR/NA.

군사정보과(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및 민간첩보과(Civil Intelligence Section)의 4개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21)</sup> 여기에서 중국정보의 수집과 분석, 평가에 대한 핵심부서는 전술정보과와 군사정보과였다.

### 2) 전술정보과

1950년 1월 1일 시점의 전술정보과는 수집목표반(Targets Branch), 운용반(Operations Branch), 지역담당반(Geographic Branch), 계획·평가반(Plans & Estimates Branch), 대외연락반(Foreign Military Liaison Branch) 및 훈련반(Training Branch)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으로 조직이 부분적으로 개편되었다. 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용반을

21) Ibid., pp. 1-2. FEC G-2는 1개의 Group, 2개의 Division, 1개의 Section으로 구성되었으나, 각 조직의 규모는 큰 차이가 없어 통일하여 '과'로 번역하였다.

17) 竹前榮治監修, 『GHQ日本占領史I-GHQ日本占領史序説』,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pp. 10-15(GHQ, SCAP&FEC, Administration of the Occupation: Introduction).

18) GHQ, SCAP and FEC, Staff Memorandum No.6, 31 January 1950, RG 338 MMR/NA.

19)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Historical Report(part 1), 1 January-31 October 1950, p.11, RG 407, MMR/NA; Brigadier General Banfill to Major General Willoughby, Subject: FEAF Representation on the G-2 Joint Intelligence Committee, 22 August 1950, RG 338, MMR/NA.

20)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 1.

확대하였는데, 훈련반의 해체와 대외연락반의 축소로 남은 인원을 운용반으로 전환하였다.<sup>22)</sup>

전술정보과의 임무는 “잠재 적을 포함한 모든 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 평가, 분배하여 불확실한 상황을 가능한 한 줄이고, 상급기관, 극동사령부 예하 각 부대를 지원하며, 또한 극동의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새로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차후의 동향을 판단하여 육군성에 전술정보를 보고하는 것”이었다.<sup>23)</sup>

전술정보과의 각 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목표반이 육군성이나 현지 지휘관으로부터 정보요구를 받아서 FEC G-2의 통제를 받고 있는 각 정보부대의 수집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보수집을 지시한다. 운용반 및 지역담당반은 수집부대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 평가하여 육군성, 극동군사령부내의 관계부서, 현지 지휘관에게 정보를 배포한다. 정보사이클<sup>24)</sup>에 의하면, 수집반이 제1단계를, 운용반과 지역담당반이 제3, 제4 단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운용반과 지역담당반의 임무구분은 운용반이 동태정보를, 지역담당반이 정태정보를 각각 담당했다. 2개 반에는 각각 중국·만주담당계를 두었는데, 지역담당반의 중국·만주담당계는 중국, 만주, 외몽고, 티벳에서의 지리, 정치체제나 전기, 철도, 통신 등의 인프라 상황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서 정리·보존하였다(정태정보). 운용반의 중국·만주담당계는 그 지역의 정치나 군사상황을 조사하여 그 동향을 분석, 평가했다(동태정보). 이런 판단은 운용반 외 계획·판단반도 실시했다. 운용반은 단기적인 판단을 하였고 계획·판단반은 중장기적인 판단을 실시하였다.<sup>25)</sup>

22)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Office Memorandum No.27, Subject: Duty Assignment, 19 September 1950, RG 407, MMR/NA.

23) GHQ, SCAP and FEC, Staff Memorandum No.6, 31 January 1950, RG 308, MMR/NA.

24) 정보순환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1단계: 지향, 2단계: 수집, 3단계: 처리, 4단계: 사용 등의 순환을 말한다(US Army Field Manual 30-5, Combat Intelligence, 1950, p. 98).

### 3) 군사정보과

군사정보과는 번역·통역반(ATIS: Allied Translation and Interpreter Section), 기술정보반(Technical Intelligence Detachment) 및 극동군정보학교(Army Japanese Area and Language School)로 편성되어 있었다.<sup>26)</sup> 이 중 번역·통역반과 기술정보반은 전쟁포로 심문, 노획 문서 번역, 노획품 조사를 실시하였다.<sup>27)</sup> 이를 위하여 군사정보과에는 각종의 어학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6월 1일 시점에서 극동군사령부의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한글 어학요원은 각각 657명, 22명, 4명, 1명이 확보되어 있었다(〈표 1〉 참조). 이들 어학요원의 임무는 통역·번역은 물론이고 적의 자료, 기재, 보급품의 수집 및 카탈로그의 작성, 포로보호 및 후송에 관한 조정 등이었다.<sup>28)</sup> 그 후 어학요원은 정보주요요소(EEI: Essential Elements of Information)의 변경에 따라 점차 증가했다.

일본어 어학요원은 일본인으로 채용하였는데, 한국전쟁 개전 전에 일본어 어학요원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소련 및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구일본군의 청취조사를 위해서였다. 마이츠루, 사세보, 하카타 및 하코다테의 각

25)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p. 12-17, 19-20; Commander of U.S. Naval Force, Far East, commanding General of Far East Air Force to Major-General Almond, Subject: Coordination of Air Effort of Far East Air Force and U.S Naval Forces, Far-East, 15 July 1950, RG 9, MMA/MV.

26)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 101.

27) Check Sheet, G-2 to Technical Services, Subject: Technical Intelligence Procedure, 17 July 1950, RG. 308, MMR/NA; GHQ, SCAP and FEC, Translator and Interpreter Service, 20 June 1950, RG 407, MMR/NA.

28)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Policy and Procedure Concerning the Use of Language Personnel and the Processing of Prisoner of War and Captured Documents in the Far East Command, 8 August 1950, RG 407, MMR/NA; AAO to G2, Subject: Captured AAA Equipment, 4 August 1950, RG 338, MMR/NA; Major Rinalducci to Col. Swensson, Subject: Captured Enemy Document, 25 September 1950, RG 338, MMR/NA.

<표 1> 극동군사령부의 어학요원(1950년 6월 1일)

구분	편성정원		1950. 1. 1		1950. 6. 1	
	장 교	하사관	장 교	하사관	장 교	하사관
일본어	144	474	104	638	104	453
러시아어	14	9	13	13	11	11
중국어	4	14	1	5	0	4
한 글	4	18	0	3	0	1
계	166	515	118	659	115	469

출처 : G-1 to G-2, 23 November 1950, Subject: Chinese Linguists, RG 338, MMR/NA.

항구에서 195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101만7,566명(구군인 51만 3,268명, 민간인 50만4,298명)을 조사했다.<sup>29)</sup>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 EEI는 소련과 중국이 주요대상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일본어 및 러시아어 어학요원을 채용하여 소련이나 중국의 산업, 광산, 통신, 석유, 항만, 비행장, 전투서열(OB: Order of Battle), 군수품의 비축, 정치 및 군의 주요간부에 대한 성격 등에 관하여 조사했다.<sup>30)</sup>

한국전쟁 발발 후, 소련에 대하여 정보를 주시하면서 북한군의 정보수집에도 노력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극동군사령부에는 불과 1명의 한글요원밖에 없었다.

그 후 소요충족을 위하여 한글요원 99명(장교 20명, 하사관 79명)을 긴급 채용하였다.<sup>31)</sup> 그러나 전황이 격화될수록 포로와 노획자료 등이 급증함으로써 채용된 인력만으로는 부족했다. 부족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군

29) Military Intelligence Service Division, FEC G-2, Repatriation Statistics, 1 January-31 October 1950, RG. 407, MMR/NA.

30)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 109.

31) Department of Army to CINCEE Tokyo Japan, Subject: Linguist Requirements for FY 51 and 52, 17 October 1950, RG 338, MMR/NA.

병사나 민간인이 임시적으로 통역과 번역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궁여지책으로 어학요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인을 활용하였다. 일제 강점기간을 거친 한글 어학요원의 대부분은 일본어를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한글로 청취된 포로증언을 우선 일본어로 전달한 후 일본인이 그것을 영어로 번역했다.<sup>32)</sup>

한편 중국어 요원은 한국전쟁 발발 후 4명을 유지하다가 중공군이 압록강을 도하하기 직전인 1950년 10월 17일에 50명(장교 14명, 하사관 36명)으로 증원되었다.<sup>33)</sup> 극동군사령부에 증원된 중국어 요원 50명은 북경어 34명(장교 10명, 하사관 24명), 광둥어 16명(장교 4명, 하사관 12명)<sup>34)</sup>으로서, 중국의 공용어인 북경어 자원이 많이 채용되었다.<sup>35)</sup> 중공군 병사들은 광둥어를 사용하는 중국 동남부의 출신자도 많아, 가끔 중국어 어학요원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 (3) 정보경로-육군성과 합동참모본부와 국무성

극동군사령부에서 발신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육군성에서 접수하였다. 극동군사령부와 워싱턴의 육군성을 연결하는 정보경로가 가장 회선이 많았는데, 매일 TELECON를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였다.

TELECON이란 한국전쟁 발발 후에 거의 매일 밤 개최되는 텔레타이프에 의한 회의이다. 이 TELECON은 20시부터 24시 사이에 시작하여 참가자는

32)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 4.

33) Department of Army to CINCFE Tokyo Japan Subject: Linguist Requirements for FY 51 and 52, 17 October 1950, RG 338, MMR/NA.

34) Ibid.

35) 북경어 요원은 34명이 증원되기 이전에 이미 21명이 채용되어 있었고, 증원되어 총원 55명이 되었다. 여기서 극동군사령부가 광둥어보다 북경어요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G-2 to G-1, Subject: Chinese Linguists, 23 November 1950, RG 338, MMR/NA).

동경측에서는 FEC G-2부장 윌로비 소장, 극동군사령부 G-1에서 G-4까지의 담당자, 극동 해·공군의 정보담당자 등 5~10명이, 또 워싱턴측은 육군성의 참모본부 제1부에서 제4부까지의 담당자, 합동참모본부(JCS) 대표, 해·공군성의 정보담당자, 중앙정보국(CIA) 대표, 국무성 대표 등 15~20명이 출석했다.<sup>36)</sup> 인천상륙작전이 펼쳐진 9월 15일부터 중공군이 개입하는 전날인 10월 24일 사이에 37회의 TELECON이 실시되었다.<sup>37)</sup>

TELECON 실시요령은 우선 워싱턴의 관심사항(Agenda Incoming)을 극동군사령부에게 전달하면 극동군사령부에서는 당일의 전투상황과 워싱턴의 질문(Outgoing & Incoming)을 송신했다. 워싱턴의 질문에서 긴급사항은 그 자리에서 응답되었지만, 통상적인 것은 다음날 TELECON으로 연기되었다. 극동군사령부는 육군성 외에 JCS와의 공식적인 채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대통령을 비롯한 상부지시, 훈령 등을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다. 군사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으면, JCS는 유엔군사령관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JCS를 통해서 맥아더의 견해를 확인하고 또 맥아더는 군사에 관련하여 정책지침이 필요할 경우는 JCS를 통해서 미국정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sup>38)</sup>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가안보회의(NSC)에 조연자로 출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동군사령부와 JCS의 경로를 이용하여 맥아더의 주장을 미국정부의 정책판단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sup>39)</sup>

국무성은 극동군사령부에서 획득하는 정보 이외에, 재외공관을 통한 독자적인 외교채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과는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성은 중국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여

중국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은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할 것<sup>40)</sup>이라는 주은래 외상의 경고는 중국의 참전을 시사하는 시그널이었지만, 이것도 중국이 미국에 직접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북경주재의 패니카(K. M. Panikkar) 인도대사를 통하여 전달된 것이다.

극동군사령부는 일본에 위치했던 국무성 관계기관에서 획득하는 정보를 통제하였다. 왜냐하면 국무성에 정보를 보낼 경우 반드시 극동군사령부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또 국무성도 일본에 위치한 국무성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싶을 때는 육군성을 통해서 요청을 해야 했다.<sup>41)</sup> 이런 상황에서는 국무성의 정보는 정보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에 비하여 뒤질 수밖에 없었다.

### 3. 극동에서의 HUMINT와 COMINT 기관

지금까지 FEC G-2의 조직과 그 운영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FEC G-2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극동군사령부가 어떻게 중국정보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생산자의 위치에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FEC G-2 이외의 정보기관, 특히 극동에서 미국의 HUMINT<sup>42)</sup>와 COMINT활동<sup>43)</sup>을 국외의 정보협력에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6)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 17.

37) TELECON 110, 15 September to TELECON 176, 14 October 1950, RG 9, MMA/MV.

38) 竹前, 앞의 책, 『GHQ日本占領史2』, p. 11.

39) 小林昭역, 『アメリカの政府情報機構—国家政策における中央情報の役割』, 日刊労働通信社, 1960, p. 120(Harry Howe Ransom, *Central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8).

40) Holmes to Acheson, 4 October 1950, *FRUS, 1950 VII, Korea*, p. 839.

41) GHQ, SOP for Theater Intelligence Division, Foreign Military Liaison Branch, undated, RG 407, MMR/NA: GHQ SCAP and FEC Official Relation and Contact with Foreign Missions, 31 January 1950, RG 407, MMR/NA.

42) 인간정보: Human-source Intelligence.

43) 통신정보: Communication Intelligence.

## (1) HUMINT기관

### 1) 극동에서의 CIA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중국본토에서는 전략활동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이 중심이 되어 대규모 HUMINT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sup>44)</sup> 1945년 10월에 OSS가 해산되고 그 활동은 CIA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OSS의 뒤를 이은 CIA는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1949년 10월 모택동에 의해 중공정권이 수립된 후 11월에 그 거점을 요코스카의 해군기지로 옮겼다. 그곳은 FRU/FEC(Field Research Unit, Far East Command)라고 하여 극동지역의 활동거점이 되었다.<sup>45)</sup>

한국전쟁 초기, CIA는 대만을 통하여 중국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다. 중국정보는 대만(중국 국민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sup>46)</sup> 중국대륙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독자적인 정보원(source)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CIA는 대만에서 접수되는 정보 이외에 극동군에서 나오는 정보(handouts)에도 의지하고 있었다.<sup>47)</sup> 이러한 상황에서 극동에서의 CIA의 정보수집능력은 군의 정보기관보다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sup>48)</sup>

44) Matthew M. Aid, "U.S. Humint and Comint in the Korean War: From the Approach of War to the Chinese Intervention",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14, No. 4(Winter 1999), p. 22; R. Harris Smith, *OSS: The Secret History of America's First Central Intelligence Ag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p. 242-285.

45) J. K. Singlaub, *Hazardous Duty: An American Soldier in the Twentieth Century*, Summit Books, 1991, pp. 135-136.

46) CIA가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1년 4월 이후부터다(Col. Ben S. Malcom (Ret.), *White Tigers: My Secret War in North Korea*, Brassers's, 1996, pp. 131-132).

47) Aid, op. cit., p. 23.

4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127; Joseph C. Goulden, *Korea:*

FEC G-2와 CIA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맥아더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정보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OSS의 공작원을 체포하거나 국외로 추방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워싱턴 OSS본부는 맥아더 배척계획("Penetrate MacArthur" Project)을 세울 정도였다. 세계대전 후에 FEC G-2는 CIA가 일본국내의 모든 기관 및 극동군사령부의 정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FEC G-2는 CIA내에 공산주의자와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CIA에 데이터를 제공하느니 파기하는 쪽을 선택했다.<sup>49)</sup>

이리하여 한국전쟁시의 맥아더와 CIA의 관계는 험악하고 긴장상태에 있었다. 스미스(Walter B. Smith) CIA장관은 한국전쟁 초기의 가장 큰 문제는 맥아더의 CIA에 대한 경계심이었다고 회고하였다.<sup>50)</sup> 이와 같이 CIA와 극동군사령부는 대립관계에 있었고, 이에 더하여 맥아더의 막대한 지위와 권력, 그리고 극동에서 CIA의 약체를 배경으로 극동지역의 HUMINT 활동은 결국 FEC G-2가 통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FRU/FEC의 활동은 FEC G-2에 의해서 사전에 조정(coordinate)됨으로써 계획부터 실시단계에 이르기까지 극동군사령부에 의해서 감시를 받았다.<sup>51)</sup> 미국의 모든 정보기구를 총괄해야 할 위치에 있던 CIA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 2) 극동군사령부가 통제하는 정보기관

CIA입장에서는 극동의 모든 HUMINT 활동을 장악하고 싶었지만, 극동군사령부가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안전을 위해서 군 자체의 HUMINT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에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sup>52)</sup> 극동에서의 모

*The Untold Story of the War*, McGraw-Hill, 1982, p. 467.

49) Cumings, op. cit., p.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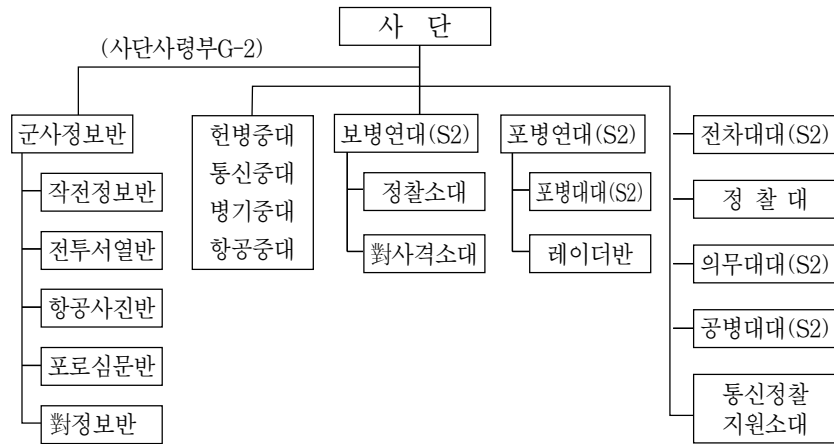
50) Peter Grose, *Gentleman Spy: The Life of Allen Dulles*,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6, p. 309.

51) Aid, op. cit., pp. 21-23.

은 HUMINT 활동은 극동군사령부내의 합동특수작전부(JSOB: the Joint Special Operations Branch)에서 통제했다. 그 임무는 미 육·해·공군 및 FRU/FEC가 실시하는 모든 HUMINT 활동을 계획, 조정, 실행하는데 있었다.<sup>53)</sup>

1949년 6월, FEC G-2는 장교 2명, 준위 1명, 하사관 2명으로 구성된 KLO(Korean Liaison Office)를 서울에 설치하고 한국정보기관과 협력하여 HUMINT 활동을 개시했다. KLO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기 전에 주한 미군 G-2에 소속되었던 한국인들이었다. 1949년 6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간에 KLO에서 1,195통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FEC G-2의 정보분석 담당관들은 KLO요원의 능력, 충성심, 이중혐의에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KLO보고서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했다.<sup>54)</sup>

[그림 3] 보병사단 정보조직



출처 : U. S. Army Field Manual 30-5, Combat Intelligence, 1956, p. 20.

52) Ibid., p. 21.

53) GHQ, SCAP and FEC, Operations Instruction No.6, 1 April 1950, RG 9, MMA/NV.

54) Aid, op. cit., pp. 33-35.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던 HUMINT는 극동군사령부가 직접 지휘하는 미 육군 정보부대가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림 3]은 미 육군보병사단 예하의 정보부대이다. 보병사단과 같이 현지부대가 제공한 정보는 담당정면 작전지역에 소재하는 북한군 상황, 특히 대부대의 이동상황, 인원손실, 식별가능한 부대명, 주요장비, 부대사기에 관한 것을 비롯하여 소련 또는 중국의 병력지원, 심리전 활동 등의 자료였다.<sup>55)</sup>

이러한 정보활동을 위하여 어학요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극동군사령부는 한글 및 중국어 요원을 증원하여, 현지에 ATIS의 전진부대(ADVATIS: Advanced ATIS)를 전방에 운용하였고, 어학요원을 보병사단에 직접 배치하여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했다.<sup>56)</sup> 1950년 10월 31일 현재, 한반도에 파견된 어학요원은 <표 2>와 같다.

<표 2> 현지파견 중국어·한글요원(1950년 10월 31일)

	장 교	하사관		장 교	하사관
ADVATIS	15	32	제24사단	2	13
제1기능사단	3	16	제25사단	4	11
제2사단	2	10	제10군단	3	15
제3사단	1	12	기 타	5	18
제7사단	2	16	(계)	(37)	(143)

출처 :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Historical Report(part 1), Plate 37; Linguist Personnel Assigned Units in the Far East Command, 31 October 1950, RG407, MMR/NA.

55)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Intelligence Instructions. No.4, undated, RG 338, MMR/NA; EUSAK, Prisoner of War Reinterrogation Report, 26 October 1950, RG 338, MMR/NA.

56) GHQ FEC Annex A (Intelligence) to Operations Instructions No.2, 30 June 1950, RG 308, MMR/NA; ATIS to G2, Subject: ADVATIS in Korea, 29 July 1950, RG 407, MMR/NA.

## 3) 주한 미군사고문단

한반도에는 CIA 및 극동군에서 운용하는 정보요원 이외에도 육군성이 직할하는 HUMINT 활동부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에 한국에 잔류했던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이다. KMAG의 정보부서는 초기에는 HUMINT 임무가 없었으나 1949년 12월 이후, 정보임무가 확대되어 정식으로 보고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육군성은 KMAG에서 직접 보내온 정보보다 극동군사령부의 평가를 거친 KMAG 정보를 선호했다.<sup>57)</sup>

## (2) COMINT 기관

## 1) 극동군사령부와 COMINT의 관계

극동군사령부에는 HUMINT의 경우와는 달리, COMINT의 수집에 관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sup>58)</sup> 극동에는 JCS예하의 3군 보안국(AFSA: Armed Forces Security Agency), 태평양육군보안국(ASAPAC: Army Security Agency, Pacific), 해군보안단(NSG: Naval Security Group), 공군보안대(USAFSS: U.S. Air Force Security Service) 등 4개의 COMINT 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sup>59)</sup>

57)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62, pp. 50-55. 關菅治역, 『アメリカと朝鮮戦争一介入決定過程の實証的研究』, サイマル出版會, 1971, p. 83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The Free Press, 1968).

58) DEPTAR(G-2) to CINCFE, 2 December 1950, RG 9, MMR/NA.

59) Aid, op. cit., pp. 25-26; Patrick C. Roe, *The Dragon Strikes: China and the Korean War, June-December 1950*, Residio, 2000, p. 110. Comint부대의 극동지구본부와 통신소는 다음과 같다. ASAPAC(동경, 치도세, 교토, 오키나와, 필리핀), NSG(요코수카, 오키나와), USAFSS(이루마).

극동군사령부는 이들 COMINT 부대를 통제하지 못하며, 각 부대는 워싱턴의 사령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각각 수집목표를 결정하여 활동하였다.<sup>60)</sup> 그러나 각 군 COMINT 부대의 결정적인 약점은 1950년 1월경까지 암호해독에 필요한 중국어자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61)</sup>

극동군사령부와 COMINT의 접점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AFSA와 ASAPAC의 연락을 위하여 전술정보과의 계획·판단반에 특별정보반(SIS: Special Intelligence Section)을 두고 COMINT 활동을 일괄하여 처리하였다.<sup>62)</sup> SIS는 매일저녁, 맥아더에게 구두로 COMINT 보고를 하면서 기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는 배포하지 않았다.<sup>63)</sup>

맥아더 이외에 COMINT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참모장, 부참모장, FEC G-2부장 및 그 외 한정된 소수 인원에만 불과했다. COMINT가 필요할 때, 그들은 SIS 사무실에서 열람만 할 수 있었다.<sup>64)</sup> 게다가 FEC G-2 부장의 승인이 없으면 복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는 COMINT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정보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sup>65)</sup>

60) 이러한 상태는 극동군사령관에게 COMINT에 관한 명확한 지시·명령이 없었으며, 또 1949년 5월 20일의 AFSA 설치령에 육·해·공군성의 COMINT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61) Clay Blair, *The Forgotten War, American in Korea, 1950-53*, Times Book, 1987, p. 181; Matthew M. Aid, "American Comint in the Korean War (Part II): From the Chinese Intervention to the Armistice",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15, No. 1 (Spring 2000), pp. 15-16.

62) NSG와 USAFSS는 연락원을 SIS에 배치하지 않고 COMINT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워싱턴의 각 본부를 통하여 극동사령부에 전달되었다.

63) Aid, "U.S. Humint and Comint in the Korean War", p. 49.

64) Ibid., p. 29.

65) GHQ, Safeguarding Military Information, 24 January 1950, RG 338, MMR/NA.

## 2) COMINT의 통합기관-AFSA

AFSA는 1949년 5월 20일,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COMINT 활동을 통합하기 위하여 JCS 예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3군의 독자적인 COMINT 부대 보유는 그대로 인정하였다.<sup>66)</sup>

한국전쟁 직후, AFSA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위치한 FAFE(AFSA Field Activity, Far East)라는 소규모 전진부대를 설치했다. FAFE의 임무는 3군의 COMINT 활동조정, AFSA본부와 극동군사령부 사이의 연락창구, 극동에서 활동하는 모든 COMINT 부대에 대한 기술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3군은 FAFE의 권위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였다.<sup>67)</sup>

## (3) 국외의 정보협력

### 1) 대만국민당의 HUMINT 제공

대만에서 수집된 HUMINT 정보는 대만주재의 미국무관 또는 동경주재 대만대사관을 통해서 극동군사령부에 제공되었다. 1950년 7월 31일, 대만에 주재하는 미국대사관 무관 및 보좌관을 10명으로 증원하여 본래의 임무 외에 제7함대와 국민당의 연락창구 역할을 추가하였다.<sup>68)</sup> 대만으로부터 획득된 정보는 중국대륙에 정보조직이 없었던 극동군사령부나 CIA에게는 소중했으나 부정확한 정보가 많아 신뢰성이 낮게 평가되었다.<sup>69)</sup> 왜냐하면 국

66) James Bamford, *The Puzzle Palace: A Report on America's Most Secret Agency*, Houghton Mifflin, 1982, p. 47.

67) SRH-123, Subject: The Brownell Committee Report, 23 June, 1952, pp. 62-78, RG 457, MMR/NA.

브라운넬 위원회는 한국전쟁시의 COMINT의 질적 저하를 조사하기 위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1951년 12월 13일에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에게 명령한 위원회이다.

68) MacArthur to Irwin, Subject: Senior Military Attaché of Formosa, 13 July 1950, RG 9, MMA/NV.

민당이 모택동에 의한 대만 무력통일에 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미국측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0)</sup> 이 때문에 대만에서 제공된 중공군 부대이동에 관한 정보는 한국전쟁에의 개입예측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sup>71)</sup>

### 2) 영국의 COMINT 제공

영국은 한국전쟁 기간, 중국에 관한 COMINT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었다. 그 COMINT는 홍콩에 주둔하는 영국 공군 제376통신대가 감청한 것을 런던의 국가통신본부(GCHQ: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에서 해독한 것으로서 워싱턴 AFSA를 경유하여 극동군사령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홍콩 통신대의 주요 목표는 중국남부였기 때문에 만주에 주둔하는 중공군에 관한 정보는 미국에 거의 제공되지 않았다.<sup>72)</sup>

## 4. 극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

### (1) 정보수집

#### 1) 항공정찰에 의한 수집활동-IMINT

극동군사령부는 항공정찰(IMINT)<sup>73)</sup>과 노획문서의 조사, 포로심문, 공개된 자료조사, 피난민으로부터의 청취(HUMINT)<sup>74)</sup>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

69) Appleman, op. cit., p. 758.

70) 豊島, 앞의 책, p. 230.

71) TELECON 127, 25 September 1950, RG 9, MMA/NV.

72) Aid, "American Comint in the Korean War", p. 16.

73) 영상정보: Imagery Intelligence

집하였다.<sup>75)</sup>

항공정찰에는 육안(visual)정찰과 사진(photo)정찰이 있었는데, 특히 사진정찰기술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급속하게 발달하였으나,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필요성이 감소되어 사진기술자 대부분이 퇴역했다. 항공사진은 높은 상공에서 촬영하므로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과 특정한 훈련이 필요했다. 한국전쟁 초기에 사진정찰은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했다.<sup>76)</sup>

또한 중공군에 대한 항공정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항공정찰 기제가 발달되지 않았던 것도 중공군 개입을 늦게 발견하는 원인이 되었다. 10월부터 11월에 걸쳐 항공정찰은 적 정확인을 위한 항공정찰보다 북한 영내의 교량, 공업지대, 수송기관 등을 공습한 후에 폭격의 효과관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중공군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압록강에서 북한지역으로의 예상접근로에 대한 항공정찰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10월 20일 이후였다.<sup>77)</sup>

그러나 이 정찰활동도 중공군의 철저한 은폐와 군대규율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올릴 수 없었다. 즉 중공군은 주로 야간이동을 하였고, 일출 전까지 취사를 끝내고 흔적을 제거하였으며, 병력과 장비를 은닉하는 등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8)</sup> 또 한국전쟁 당

74) 인간정보: Human-source Intelligence

75) Eliot A. Cohen, "Only Half the Battle: American Intelligence and the Chinese Intervention in Korea, 1950,"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5*, No. 1 (January 1990), p. 133.

76) Robert F. Ful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Office of the Air Force History, 1983, pp. 72, 228-229, 273.

77) Far East Command Daily Intelligence Summary(이하 FEC DIS라고 약기한다) 2963, 20 October 1950, RG 338, MMR/NA. FEC G-2는 10월 20일 이후 매일 만주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에 항공정찰을 실시했지만, 중공군의 개입을 나타내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78) 중공군 포로의 증언, Eighth United States Army Korea(이하 EUSAK라고 약기한다) Prisoner of War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28 October 1950, RG 338, MMR/NA.

시, 미군의 야간정찰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 압록강을 도하하는 중공군을 발견하기는 곤란했다.

실제, 중공군이 압록강을 도하했던 10월 19일 당일에 극동군사령부 참모 제2부(FEC G-2)는 한만국경 가까이 위치한 단둥(랴오닝성)부근에 항공정찰을 실시하였지만 중공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항공정찰의 목적은 단둥 가까운 비행장에 75기에서 100기의 항공기가 대기하고 있다는 전날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정찰결과, 비행장에는 1대의 차량 외에 항공기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지난 며칠간을 비교하면 부근도로 및 철도는 한산한 상황이라고만 보고되었다.

FEC G-2는 시야가 좋은 날에 숙달된 정찰요원에 의해서 항공정찰을 실시하여 평가한 결과, 2개의 가능성을 추론했다. 하나는 18일에 확인된 항공기는 장거리 비행훈련 도중에 일시적으로 체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공기의 대집결을 통한 미국에 대한 협박(saber-rattling)으로 주은래의 경고발언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했다.<sup>79)</sup>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이 참전한다는 주은래의 발언을 경고라기보다는 협박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사실, 항공기는 중공군의 남침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도로가 한산한 것은 5개 사단이라는 대부대<sup>80)</sup>의 행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민간수송기관의 이동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FEC G-2는 "단둥부근의 중공군은 남침에 용이한 도로망에 연하여 배치하고 있어 만주에 주둔하는 부대 가운데서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다"<sup>81)</sup>라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군은 주간에 항공정찰을 실시하고 중공군은 야간에 행동함으로써 중공군의 개입을 예측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79) FEC DIS 2963, 20 October 1950, RG 338, MMR/NA.

80) 朱建榮, 「毛沢東が力説した参戦の必然性:中国軍はなぜ介入したか」, 『朝鮮戦争(下)』, 学研, p. 71(제39군 제115사단, 제116사단, 제40군 제119사단, 제120사단, 포병 제1사단).

81) FEC DIS 2957, 14 October 1950, RG 338, MMR/NA.

게다가 항공정찰은 미국정부의 명령으로 비행구역이 제한되었다. 비행구역은 한반도내에 한정되었다. 중국 및 소련에 개입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압록강 넘어 비행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항공정찰을 더 복잡하게 한 것은 조직내부의 절차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 FEC G-2의 전술정보과의 계획·판단반내에 지도·사진정찰계(Mapping and Photo Reconnaissance Section)가 신설되었다. 사진정찰은 전투지역의 측량정찰과 적정수집·폭격판정을 목적으로 실시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 지도·사진정찰계를 거쳐야 했다. 지도·사진정찰계에서는 신청된 항공정찰의 필요여부, 우선순위 책정을 하고 있었으나,<sup>82)</sup> 신청에 따른 형식과 규칙이 까다로워서 많은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구하는 등 예하 부대가 항공정찰보고서를 수령하는데 약 3~4일이나 소요되었다.<sup>83)</sup>

이와 같이 항공정찰에 의한 정보수집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각 부대는 HUMINT 활동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노력했다.

## 2) 어학요원에 의한 수집활동-HUMINT

FEC G-2에 보고된 HUMINT는 군사정보과의 번역·통역반(ATIS)<sup>84)</sup> 및 그 전방부대(ADVATIS),<sup>85)</sup> 그리고 각 사단의 정보참모부에 의해서 수집된 것이다. 수집활동은 이러한 부서에 배치된 중국어 및 한글 어학요원이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어학을 구사하여 노획문서의 번역, 포로심문 및 피난민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다.

82)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 18. 16.

83) Headquarters of Far East Air Forces to Commander-in-Chief, Far East, 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 Navy, Subject: Requests for Aerial Reconnaissance, 16 August 1950, RG 338, MMR/NA: Eliot, op. cit., p. 134.

84) Allied Translation and Interpreter Section.

85) Advanced ATIS.

포로심문 및 노획문서는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되어 정보계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ATIS에 접수하게 되어 있었다. 사단급에서 실시하는 포로심문은 모든 포로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2회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기록한 후, 상급부대에는 요약해서 보고하였다. 더욱 중요한 증언은 ADVATIS 등에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포로 심문서는 한국인, 러시아인, 중국인, 일본인, 그 외의 국적자의 5개로 구분하여 ① 인적사항: 성명, 계급, 출생지, 생년생일, ② 평가: 증언내용의 신뢰도 및 상급부대에서 재심문 필요성 유무, ③ 정보: 소속부대의 편성장비, 임무, 배치상황, 부대간의 통신망, 작전계획, 다른 부대에 관한 정보, 부대규율 등의 내용을 기술하게 되어 있었다.

노획한 자료도 기본적으로 포로의 보고요령에 준하여 보고하였는데, 보고문서는 A자료(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 B자료(전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 C자료(비군사정보) 등의 3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암호문서를 노획했을 경우는 극동군사령부의 통신담당참모에게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또 포로로부터 암호문서를 입수했을 경우는 그 포로를 상급부대에 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sup>86)</sup>

한국전쟁 개전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 ATIS에서 획득한 자료는 2,714건으로, 그 중에 약 1,000건이 워싱턴에 송달되었다. 송달된 자료의 대부분은 한반도의 철도, 수력발전, 교량, 촌락위치, 농업 등에 관한 것이었다. 획득한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번역되었으며 그 번역 자료는 A자료 1,339건(23,099페이지), B자료 1,604건(40,920페이지), C자료 460건(7,062페이지)이나 되었다.<sup>87)</sup>

10월 31일까지 포로 및 억류자의 심문 및 청취조사에서 ADVATIS가

86)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Policy and Procedure concerning the Use of Language Personnel and the Processing of Prisoners of War and Captured Documents in the Far East Command, 8 August 1950, RG 407, MMA/NA.

87) 획득한 자료수와 A, B, C의 번역 자료수의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1개의 획득한 자료에서 내용에 따라 다수의 번역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2,397통(페이지수 불명)의 포로 심문서를, 또 제8군이 13,030페이지(통수 불명)의 심문서를 ATIS에 보고했다. ATIS는 이 외 소련 및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구일본 군인 및 민간인 6,875명을 대상으로 증언을 청취하여 소련 및 중공군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 정보를 기초로 ATIS가 관계기관에 배포한 보고서는 약 195,620건, 1,727,212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sup>88)</sup>

이와 같이 정보의 질은 차치하고, 그 분량은 다른 정보기관의 수집량을 훨씬 능가했다. 이것은 국무성이 극동군사령부에 한국전쟁과 소련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양에 수집팀의 파견을 요구했을 때, 극동군사령부는 현지 부대만으로 정보수집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거절한 것처럼,<sup>89)</sup> 극동군사령부 이외의 기관은 극동에서의 정보활동이 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극동군사령부가 극동정보를 독점하게 되었다.

## (2) 정보처리

FEC G-2의 전술정보과는 정보를 처리하는 핵심부서였는데, 한국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계속 증가되는 정보요구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였다. 1950년 1월 1일 인원은 156명(장교 63명, 하사관 6명, 군무원 47명)이었으나, 10월 31일에는 223명(장교 86명, 하사관 76명, 군무원 61명)으로 증원되었다. 또 정보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1일 근무도 약 15시간으로 연장되었다.<sup>90)</sup>

전술정보과에는 예하부대를 통해서 수집하는 IMINT 및 HUMINT 외에, 3군 보안국(AFSA)과 태평양 육군통신보안국(ASAPAC)으로부터 정기적인 통신정보(COMINT), 또 육군성으로부터 대만의 정보, 국무성의 정보도 접

수되고 있었다. 또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및 한국군으로부터 현지정보도 직접 접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술정보과에는 전투지역의 기상과 지형, 적의 편성 및 활동에 관한 정보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보과는 일일정보요약(Daily Intelligence Summary : DIS)을 발간하여 매일 3부는 특송(courier)으로 워싱턴에 전달하였으며, 그 외 54부는 항공우편으로 발송되어 약 3~6일만에 워싱턴에 도착하였다.<sup>91)</sup> 이 밖에도 대상국의 지리, 정치, 사회 등의 특정분야를 조사 분석한 특별보고서를 10월 31일까지 1,152건 작성하여 육군성에 보고하였다. 이 가운데 688건이 한반도 정세에 관한 내용이고, 나머지 464건이 점령국 일본에 관한 정보였다. 그 밖에 육군성으로부터 한국전에 관한 74건의 특별정보요구가 접수되었고, 180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sup>92)</sup> 그러나 많은 정보 중에 DIS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에 관한 정보의 90%는 극동군사령부로부터 보고되었다는 콜린스 육군총장의 발언은 이 DIS에 의한 정보를 가리킨다. DIS는 제8군 등 현지 부대로부터의 보고내용, 군사정보과의 ATIS나 기술정보반에 의한 통역·번역자료 및 항공정찰 등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대상지역은 한반도, 일본, 중국·만주, 동남아시아 등이었다.

매일 30페이지 이상의 DIS가 작성되었는데, 한반도에 관한 정세분석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일정기간내(통상 24시간 이내)의 적정(전투상황, 적의 인원 및 장비피해상황), 적의 가능행동의 열거와 검토, 보고기간 중의 기상 및 지형상태가 기술되었다. 게다가 다른 정보문서, 예를 들면 군사정보과에 의한 기술정보보고서나 포로심문서, 전술정보과에 의한 전투서열(OB) 보고서 등도 요약되어 포함되었다. DIS에 실린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부분에 기재된 적의 가능행동에 관한 분석이었

88)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p. 110-111.

89) TELECON 160, 14 October 1950, RG 9, MMA/NV.

90)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p. 12-13.

91) TELECON 194, 3 November 1950, RG 9, MMA/NV.

92)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op. cit., p. 23.

다.<sup>93)</sup> FEC G-2가 실시한 이 분석은 워싱턴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sup>94)</sup>

FEC G-2가 작성한 보고서가 중국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정태정보와 동태정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정태정보(靜態情報)는 지리, 전기, 철도, 통신 등의 인프라 상황 및 군의 전투서열(OB) 등을 말하며, 동태정보(動態情報)는 중공군의 활동상황을 가리킨다.

### (3) 중국정보의 실태

#### 1) 정태정보

극동군사령부의 중국에 관한 지역연구는 1947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3권의 책(각권 300~400페이지: 지도, 사진을 포함)이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조사지역은 상하이에서 후루다오(葫蘆島)<sup>95)</sup>까지의 연안 및 만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내용은 지형, 식물 및 생물, 하천, 수송시설, 산업, 자원, 통신, 기상, 사회구성 및 보건위생환경 등이었다. 자료는 구일본군이 작성한 지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조사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등의 증언 및 지역연구를 추가했다.<sup>96)</sup>

이 지역연구는 1950년에 들어서도 계속되어 '만주의 통신·전화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서'<sup>97)</sup>가 육군성에 제출되었다. 중국연구에 관한 기초조사는

93) Cohen, op. cit., pp. 131-133.

94) Patrick, op. cit., pp. 108-111.

95) 랴오둥 만에 접하는 항구도시.

96) FEC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Directive on Geographic Studies, 17 July 1947, RG 407, MMR/NA.

97) FEC G-2 Special Report: Telecommunications in Manchuria, 4 August 1950, RG 407, MMR/NA.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이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공군의 전투서열에 대해서는 주로 제3야전군 및 제4야전군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중공군의 기동부대는 제3야전군 및 제4야전군이 핵심이었는데, 다른 부대들은 치안군의 색채가 강했다. 특히 임표(林彪)가 지휘하는 제4야전군은 중국해방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극동군사령부의 관심은 이 제4야전군에 집중되어 있었다. 제4야전군의 전투서열보고서는 제4야전군의 역사적 배경, 주요지휘관 및 참모, 부대편성, 장비성능 및 제원, 배치상황, 전술사상 등으로 작성되었고,<sup>98)</sup> 제3야전군에 관한 것도 이와 비슷했다.

이러한 전투서열에 대해서, 당시의 극동군사령부 외교국장 시볼드(William J. Seabald)는 1950년 11월 7일 아침 총사령부의 정례브리핑에서 "월로비 장군은 압록강 북쪽 강안에 위치한 수 개의 사단명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내가 이 사단 이름과 주둔지가 정확한 것인지 월로비 장군에게 물었을 때, 그는 분명히 확실하다"고 말했다.<sup>99)</sup>

전투서열을 작성하는 데에는 구일본군인 억류자로부터 증언청취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1950년 7월 10일 및 8월 8일에 중국에서 귀국한 2명의 억류자로부터 작성한 보고서에는 "1명은 통신기술자로서 중공군 제3야전군에, 다른 1명은 야전포병의 교관으로서 제4야전군에 근무하고 있었던 자"로서 "그들의 정보는 이 2개 군의 부대편성 및 장비를 파악하는데 아주 가치가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00)</sup>

이 밖에도 중공군의 전투서열에 관한 정보는 대만의 국민당 및 미군의 COMINT 기관에서 수집하였다. 극동군사령부는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98) FEC G-2 Special Report Order of Battle Information, Chinese Communist Fourth Field Army, RG 407, MMR/NA; C. A Willoughby, Assistant Chief of Staff, G-2 to D. O. Hickey, Acting Chief of Staff, Order of Battle Information, Chinese Communist Fourth Field Army, 7 November 1950, RG 407, MMR/NA.

99) 野末賢三역, 『日本占領外交の1回想』, 朝日新聞社, 1966, p. 175(William Joseph Seabald, *With MacArthur in Japan*, Charles E. Tuttle, 1965).

100) ATIS Interrogation Target Book, 2 October 1950, RG 407, MMR/NA.

1950년에 '중공군의 통신시설에 관한 보고서'<sup>101)</sup>와 '중공군내의 북한인에 관한 보고서'<sup>102)</sup> 등 2건의 전투서열 특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일부 연안지역이나 만주의 지형, 인프라 상황 및 중공군의 기간부대 전투서열 등에 관한 정태정보를 극동군사령부내에서 종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태정보는 적의 능력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의 주요목적은 적의 능력과 의도를 해명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적의 의도를 해명하는데 필요한 동태정보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는가.

## 2) 동태정보

모택동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7월 하순까지 제4야전군 예하의 2개 군(제38군, 제40군)을 만주로 추진하여 동북변방군을 창설했다. 따라서 만주에서 중공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1950년 여름부터 압록강을 건너는 10월까지 발간된 정보보고서를 검토해 FEC G-2가 중공군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DIS의 '인텔리전스 하이라이트(Intelligence Highlights)'를 검토해 보자. DIS는 한반도 군사정세에 가장 중점을 두었고, 그 밖에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인도차이나 등의 군사, 정치, 경제, 외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인텔리전스 하이라이트'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국가별로 요약한 것이다. 이 '인텔리전스 하이라이트'의 중국항목을 조사해 보면 극동군사령부가 입수한 중공군에 관한 정보요약을 개관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DIS의 '인텔리전스 하이라이트'에는 326건의 중국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이 가운데 군사에 관한 정보는 221건이며 내용별로는 <표 3>과 같다.<sup>103)</sup> 가장 많은 정보는 만주 이외로 전개하는 중공

101) FEC G-2 Special Report: Chinese Communist Military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9 September 1950, RG 407, MMR/NA.

102) FEC G-2 Special Report: North Koreans in Chinese Communist Forces, 10 August 1950, RG 407, MMR/NA.

군에 관한 것이 137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들은 광둥(廣東), 샤먼(廈門), 홍콩(香港), 푸저우(福州), 산터우(汕頭) 등 푸젠성이나 광둥성에 있는 중공군의 동향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중공군의 징병상황, 지상군의 이동상황, 해군함정의 훈련상황, 비행장 건설상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이 중국에서의 소련군 동향에 관한 것으로 러시아인 교관에 의한 중국인 조종사나 전차 승무원의 양성, 중국내의 소련기 배치상황, 중국연안에서의 소련해군상황 등 57건(26%)이다. 만주에 주둔하는 중공군에 관한 정보는 가장 적어 불과 27건(12%)뿐이다.

이러한 보고내용에서 만주에 주둔하는 중공군에 관한 정보보다 중국 동남부와 중국에서의 소련군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EC G-2에서 만주지역보다 중국 동남부의 중공군에 주목하고 있었던 배경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보다는 오히려 대만의 공격가능성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개입정책에 대하여 모택동 및 주은래는 중국의 대만 해방은 내정문제이며, 미국의 대만개입은 중국영토에 대한 무력침공이라고

<표 3> DIS로 보고된 중국의 군사정보 건수(1950. 9. 1~10. 31)

	9월	10월	총 계
만주이외의 육군에 관한 내용	42건	42건	137건(62%)
만주이외의 해군에 관한 내용	10건	12건	
만주이외의 공군에 관한 내용	15건	16건	
중국내의 소련군에 관한 내용	35건	22건	57건(26%)
만주의 중공군에 관한 내용	11건	16건	27건(12%)

출처 : FEC DIS 2914-2974, 1 September-31 October 1950, RG 338, MMR/NA.

103) FEC DIS 2914-2949, 1 September-31 October 1950, RG 338, MMR/NA.

강하게 비난하였고, 또 중공군 총사령관 주덕은 대만을 해방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반복하여 강조했다.<sup>104)</sup> 이러한 중국의 강경자세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FEC G-2의 정보수집은 대만공격이 예상되는 중국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중공군에 중점을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만주에 주둔하던 중공군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시계열에 의해서 확인해보자.

만주에 위치하는 중공군의 동향은 9월의 DIS에서 조금씩 나타난다. 만주로 이동하고 있는 야전군이 식별되었는데, 제4야전군의 각 부대가 1949년 12월 이후부터,<sup>105)</sup> 또 제1야전군이 1950년 9월 초순부터 만주에 진입하고 있는 등<sup>106)</sup> 부대명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부대식별이 가능했던 것은 중공군의 전투서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21일에는 만주에 전개된 중공군을 지도와 함께 보고하고 있다. 극동군사령부는 이 시점의 만주에 주둔하는 중공군을 17개 군(59개 사단), 약 44만 9천명으로 추측하고 있었다.<sup>107)</sup> 또 10월 6일에는 제4야전군의 제41군 및 제44군이 3일간 주야연속으로 북쪽을 향하여 이동 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sup>108)</sup>

만주내부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시시각각 접수되었다.

9월 6일, 단둥(丹東)에 만주내의 중공군에 대한 주요 보급기지가 있다.<sup>109)</sup> 9월 8일, 전차 약 100대와 항공기 약 300기가 단둥부근에 집결중이며, 또 치타(소련 영내)-선양(瀋陽)-베이징(北京)간의 항공수송량이 증가하고 있다.<sup>110)</sup> 9월 21일, 제4야전군 예하의 3개의 특수임무부대가 만주에서

확인되었고, 산하이관(山海關) 부근에 참호를 구축하여 연안포와 대공포를 설치하였다.<sup>111)</sup> 9월 23일, 한민국경지역의 주민이 대피하고, 약 45기의 소련기가 다롄(大連)에서 확인되었다.<sup>112)</sup> 9월 25일, 소련기 약 100기가 만주 상공을 비행하고, 중공군복을 착용한 러시아인이 다롄에서 확인되었다.<sup>113)</sup> 10월에 들어서도 중국의 참전을 시사하는 보고가 계속 되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들어온 정보는 8월 중순에 대규모 부대와 물자가 한커우(漢口)에서 베이징을 경유하여 동북지방으로 향해서 철도로 수송되었기 때문에 2 일간에 걸쳐 베이징과 텐진(天津)간의 철도의 민간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전했다.<sup>114)</sup>

또 10월초부터 한민국경 가까이의 단둥과 선양 사이에 부대이동이 시작되어 민간수송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도 보고되었다.<sup>115)</sup> 그 외 부대이동에 관한 정보로서 부대명칭 불명의 보병사단 및 포병사단이 베이징에서 만주로 이동하고 제3야전군이 텐진에서 선양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sup>116)</sup> 그밖에 馬城 비행장(내몽고 자치구), 龍綺 비행장(내몽고 자치구) 및 錦縣 비행장(랴오닝성)의 보수와 확장공사,<sup>117)</sup> 하얼빈과 단둥간의 도로건설<sup>118)</sup> 등 군사기반의 정비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또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쓰핑(四平)에 전차학교가, 선양에 수송학교, 포병학교, 대공포학교, 위생학교,<sup>119)</sup> 그리고 창춘(長春)에 화학학교가 있으며,<sup>120)</sup> 일부 학교에는 러시아

104) Chen, op. cit., pp. 129-130.

105) FEC DIS 2920, 7 September 1950, RG 338, MMR/NA.

106) FEC DIS 2923, 10 September 1950, ibid.

107) FEC DIS 2934, 21 September 1950, ibid.

108) FEC DIS 2950, 6 October 1950, ibid.

109) FEC DIS 2919, 6 September 1950, ibid.

110) FEC DIS 2921, 8 September 1950, ibid.

111) FEC DIS 2934, 21 September 1950, ibid.

112) FEC DIS 2936, 23 September 1950, ibid.

113) FEC DIS 2938, 25 September 1950, ibid.

114) FEC DIS 2966, 23 October 1950; FEC DIS 2971, 28 October 1950, ibid.

115) FEC DIS 2964, 21 October 1950; FEC DIS 2973, 30 October 1950, ibid.

116) FEC DIS 2969, 26 October 1950, ibid.

117) FEC DIS 2921, 8 September 1950; FEC DIS 2934, 21 September 1950, ibid.

118) FEC DIS 2921, 8 September 1950, ibid.

119) FEC DIS 2920, 7 September 1950, ibid.

120) FEC DIS 2934, 21 September 1950, ibid.

의 고문과 교관이 소개하고 있는 것도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정보는 만주에 대규모 부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중국의 참전을 시사하는 신호였다. 또 중국 참전의도를 나타내는 정보는 북한군 포로신문이나 북한군의 포로가 된 미군으로부터의 청취조사에서도 증명할 수 있었다.

9월 25일, 북한군포로 김표중(Kim Pyo Chong) 소위는 중국이 참전한다는 풍문이 북한군 내부에 퍼져있다고 증언했다.<sup>121)</sup> 게다가 10월 15일, 김동수(Kim Tong Su) 대위는 약 100만 명의 중공군이 만주에 주둔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sup>122)</sup> 이들 북한군 포로신문서가 극동군사령부의 고위간부까지 전달되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미군으로부터의 청취조사 결과는 극동군사령부에 직접 보고되었다.

9월 12일에 포항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던 미 육군 제24사단 소속의 맷카버 중위(Billy M. McCarver)는 억류되었던 기간 동안에 3명의 소련군에게 심문을 받았다. 그 때, 1명의 소련군이 “미군이 38선을 돌파했을 경우, 소련동맹국들은 분명히 전쟁에 개입한다”고 말했다.<sup>123)</sup> 그 소련군은 중국이라고 특정지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소련동맹국이라고 하는 말투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암시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검증에서 보면 정태정보 및 동태정보 모두 중공군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정보를 분석한 극동군사령부는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

## 5. 극동군사령부의 정세판단

### (1) 정세판단의 추이

1950년 8월 하순 무렵까지, FEC G-2는 상당한 규모의 중공군이 중국 남부지역에서 만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중국에 한국전쟁 개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경제재건과 국내개발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모택동 정권은 소련의 파병요구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며 중공군 개입의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었다.<sup>124)</sup>

9월 중순 이후의 FEC G-2의 정세판단은 [그림 4]에 나타내는 대로이다. [그림 4]는 인천상륙작전의 다음날인 9월 16일부터 중공군의 개입을 맥아더가 처음으로 인정했던 11월 4일의 전날까지, FEC G-2가 실시한 정세판단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은 기간을, 세로축은 ‘적의 가능행동의 채택 확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적의 가능행동의 채택 확률순위는 유엔군이 임무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의 행동을 예측하여 이것을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열거한 것이다. 그래프에서는 E-1이 적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적의 가능행동 열거는 적으로부터 기습을 방지하는데 주안을 두고, 그 순위 부여는 징후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다.<sup>125)</sup>

FEC G-2는 1950년 9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적의 가능행동으로서 5개의 경우를 예측하였다. 이 가운데 4개가 북한군에 관한 것으로 북한군은 ① 38선 이북에서 방어를 위한 재편성, ② 우세한 전선에서의 지연작전, ③ 방어진역으로 후퇴, ④ 케릴라 활동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머

121) EUSAK, Prisoner of War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25 September 1950, RG 338, MMR/NA.

122) EUSAK, Prisoner of War Preliminary Interrogation Report, 15 October 1950, ibid.

123) ATIS Interrogation Report No. 1708, 9 October 1950, RG 338, MMR/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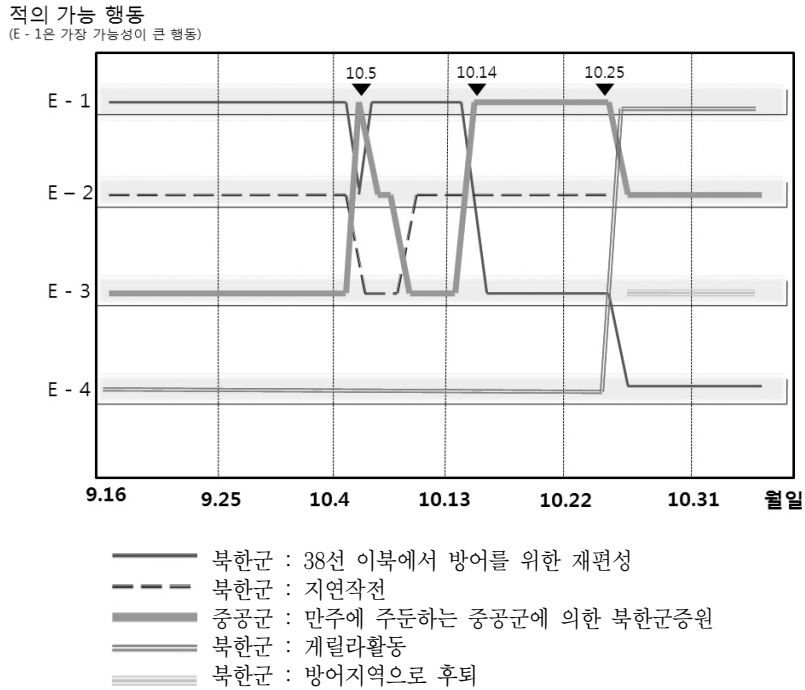
124) FEC DIS 2908, 26 August 1950, RG 338, MMR/NA.

125) U.S. Army Field Manual 459-7783, 21 December 1978, pp. 633-635.

지의 1개만이 중공군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⑤ 만주에 주둔하는 중공군이 북한군을 증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sup>126)</sup>

[그림 4]에서 극동군사령부의 정세판단 추이를 관찰하면, 대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초기), 10월 14일부터 25일(중간) 및 10월 26일부터 11월 3일(후기)의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 FEC G-2의 정세판단의 추이(1950. 9. 16~11. 3)  
- 적의 가능 행동 판단 -



출처 : FEC DIS2929-2977, RG 338, MMR/NA를 이용하여 논자가 작성

126) FEC DIS 2929-2977, 16 September to 3 November 1950, RG 338, MMR/NA.

FEC G-2의 초기판단은 북한군이 38선 이북에서 방어를 위한 재편성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유엔군보다 우세한 위치(서해안 및 중부)에서 지연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것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의 전황이 호전됨으로써, 9월 21일경에 북한군이 전체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여 일부지역에서는 후퇴하는 것이 확인되고부터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주에 주둔하는 중공군이 북한군을 증원할 가능성은 3위(E-3)에 있었으나 그 징후가 없어 개입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FEC G-2는 대체로 중공군개입의 가능성보다 북한군의 행동가능성에 우선권을 두고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FEC G-2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의 원산점령(10월 10일)은 북한군에 있어서 작전상 심대한 타격이었으며, 병사 및 장비손실은 아주 많다. 북한군의 장차작전은 아마 평양 방어를 위해서 조직을 재편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아직도 우세한 상황에 있는 서쪽 및 중부의 방어선에서 지연작전으로 시간을 벌어, 방어를 위하여 재편성을 할 수 있다. 만주에 주둔하는 중공군은 북한군을 증원할 능력은 있으나 개입할 명확한 징후는 없으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sup>127)</sup>

FEC G-2의 중간판단에서는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이 가장 높고, 반대로 북한군의 지연작전 및 재편성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시기는 평양공격이 진행되고 있던 단계로서, 만약 중공군이 개입한다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정보출처는 불분명하지만 극동군사령부에 접수된 “중국은 참전을 결정하였고 40만 명이 10월 18일 또는 20일에 압록강을 도하할 우려가 있다”<sup>128)</sup>는 정보도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127) FEC DIS 2956, 13 October 1950, ibid.

128) FEC DIS 2963, 20 October 1950, ibid.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간의 10월 14일과 20일의 FEC G-2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의 붕괴에 의해서, 유엔군은 소련 및 중국의 태도에 중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양국은 이미 보급품 지원이라는 형태로 한국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현시점에서는 소련의 직접개입은 없을 것이지만, 쓸모없는(idle) 수백만의 중공군이 미국에 적대할 가능성이 있다.”<sup>129)</sup>

“한민국경에 전개하는 중공군이 단둥이북에서 압록강을 도하할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 확실하지 않으나 개입일자는 10월 20일로 설정되었다는 정보가 있다. 중국이 참전하면 필히 사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sup>130)</sup>

FEC G-2의 후기판단에서는 그때까지 최하위(E-4)로 평가되었던 북한군의 게릴라활동 가능성을 가장 높게 판단하였다. 이것은 평양을 점령하여, 한국군의 일부가 압록강에 이른 단계로서 이미 북한군의 조직적 저항은 없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은 두 번째 우선순위(E-2)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중공군개입은 기회를 잃어 그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다. 또 워싱턴에서 극동군사령부에 전달된 정보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이 머지않아 끝날 것으로 믿고 있어서, 그 후에는 북한군의 게릴라 작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선전(propaganda)대상은 한반도에서 인도차이나로 전환되고 있다”<sup>131)</sup>는 내용이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10월 25일에 운산에서 처음으로 잡힌 중공군 포로의 증언이 FEC G-2에 접수되었지만, 중공군의 개입은 거의 없

129) FEC DIS 2957, 14 October 1950, *ibid.*

130) FEC DIS 2963, 20 October 1950, *ibid.*

131) FEC DIS 2963, 20 October 1950, *ibid.*

을 것이라는 최초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전의 FEC G-2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북한군의 조직은 이미 붕괴되어 병사들은 전투의지를 상실하였고, 만주로 피난을 획책하고 있다. … 북한군은 향후 도시지역에서의 테러활동, 마을습격, 철도 및 도로 파괴, 보급로 매복 등의 게릴라 활동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 중공군은 현대전 전투경험이 적고, … 또 중공군의 훈련은 장비와 탄약이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 … 유엔군이 공중우세를 계속 확보하는 상황에서는 중공군도 북한군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물리적 핸디캡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야만 한다. 군사적 관점에서 유엔군이 승리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중공군이 개입할 호기가 이미 멀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군사개입의 계획이 있었다면, 북한군의 전력은 떨어진 현시점까지 연기되었다는 것은 믿기 아주 어렵다.”<sup>132)</sup>

해당기간의 50일 가운데,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일수는 13일간에 불과하며, 북한군의 가능성 있는 행동의 일수는 그보다 약 3배가 되는 37일간이다.

## (2) FEC G-2의 오판

10월 13일까지 FEC G-2는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10월 5일에 일시적으로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대부분은 북한군이 38선 이북에서 재편성하거나 지연작전으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하에 맥아더는 38선 이북으로 진격하여 북한군 격멸을 최종 목적으로 한 북진작전계획을 JCS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소련군 혹은 중공군이 개입할 징후가 없다고 명기하고

132) FEC DIS 2971, 28 October 1950, *ibid.*

있다.<sup>133)</sup>

그러나 그 사이 모택동은 10월 1일에 첫 번째 참전결정을, 4일 후에는 두 번째 결정을, 그리고 13일에는 최종 결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중공군의 개입이 결정된 단계에서도 FEC G-2는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을 낮게 판단했다. 그리고 10월 5일에 중공군개입의 가능성을 E-1(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낸다)으로 올렸다가 불과 하루 만에 그 가능성을 다시 내렸다.

또 10월 14일부터 25일 사이에 FEC G-2는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중공군의 제1차 공세가 시작된 10월 25일 다음 날에 그 가능성을 E-1에서 E-2로 내렸다. 그리고 맥아더는 그때까지의 북진한계선(신 맥아더라인)을 철폐하고, 유엔군의 군사행동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고 중공군이 대치하는 압록강을 향하여 추격을 명령했다.

중공군은 만주에서 축차적으로 이동하여 참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또 이것을 암시하는 확실한 정보가 극동군사령부에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극동군사령부는 실제의 정세와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극동군사령부는 만주에 주둔하던 중공군의 능력을 평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중공군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 귀중한 정보가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것이다.

## 6. 결론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예측하는데 왜 실패하였는지 그 원인을 조사한 것으로 1950년 9월 15일 인천상

133) MacArthur, CINCFE Tokyo Japan to DEPTAR Washington D.C. for the JCS. No. C 64805, 28 September 1950, *Documentary History of the Truman Presidency*, Vol. 18, *The Korean war: June 25, 1950-November 1950*,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97, p. 494.

륙작전에서부터 약 2개월 동안의 미 극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또한 다음과 같은 2개의 의문점을 조사했다. 첫째, 극동군사령부에는 중국의 경고나 중공군의 개입을 시사하는 많은 시그널이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왜 파악하지 못했을까? 둘째, 중공군 개입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극동군사령부의 잘못을 미국정부가 재평가도하지 않고 왜 그대로 받아 들였을까? 이 2개의 의문을 검토함으로써 실패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극동군사령부가 중국의 개입징후를 잘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이 개입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작용하여 정보의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다. ② 중공군의 개입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애매하여 중국의 대만침공에 관한 노이즈에 묻혀 버렸다. ③ 예측은 인간이 실시하기 때문에 정보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착오가 따른다. 즉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 정보사이클 내에서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이 낮게 판단되었던 것이다.

집중형 정보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극동군사령부의 잘못된 판단이 재검토 없이 미국정부에 그대로 수용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진주만 기습을 교훈삼아서 CIA가 정보를 집약할 수 있는 제도는 확립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극동정보에 관해서는 극동군사령부가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재평가해야 할 CIA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집중형 정보시스템은 왜곡되어 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극동군사령부의 오판은 그대로 CIA의 국가정보판단(NIE)으로 접수되어 미국의 정책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미국정부는 극동군사령부의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였고 극동군사령부는 미국의 정책에 너무 개입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왜곡이 한국전쟁 당시에 정보실패의 원인이 됐다. 극동군사령부(정보생산자)의 오판과 정책결정자(정보소비자)의 오판

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미국은 중공군개입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과도기에 등장한 집중형 정보시스템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왜곡현상이 나타났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왜곡도 극동군사령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8. 3. 24, 심사수정일 : 2008. 5. 23, 게재확정일 : 2008. 6. 16)

주제어 : 한국전쟁, 중국개입, 미극동군사령부, 정보활동, 정보시스템, 미중앙정보국, 국가정보판단, 인간정보, 통신정보, 영상정보

<ABSTRACT>

A Study on the Failure of Prediction to the Chinese Communists Force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 The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FEC -

Lee, Jong-pan · Ko Yanagi-Junichi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ilure of prediction to the Chinese Communist Forces(CCF)'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in 1950. For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intelligence operations of the Far East Command(FEC) during the two months from the day of the 15th September 1950, when the Incheon Amphibious Landing Operations were held in Incheon. I have investigated the following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was the reason why the FEC did not understand the possibilities of the intervention even if they received many warning and signals that implicated the intervention. The second question was the reason why the US Government accepted the FEC's misestimation about the possibilities of the CCF's intervention without reestimation. As I reviewed these two questions, I could find the cause of failure.

The reason why the FEC did not understand the signal of the CCF'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was as follows. Firstly, many complications with respect to the CCF'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have made the uncertainty of intelligence magnified. Second, as the signals about he CCF's intervention was ambiguous, they were buried in the noise that implicated the possibilities of the CCF's invasion against the Taiwan. Third, as estimations are activities human beings do not like, there exists possibilities

of mistake during information processing. All these factors made the FEC underestimate the possibilities of CCF'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As 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s did not work properly, the US Government accepted the FEC's misestimation about the possibilities of CCF's intervention without reestimation. As a result of the Japanese Invasion against the Pearl Harbor during the Second World War, CIA were equipped with system to filter many diverse intelligence during the Korean War. But as intelligence about far-east area were preoccupied by the FEC, CIA did not work properly which should reestimate intelligence accurately. As shown, the US intelligence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was operated in distorted way.

Misestimation of the FEC about the possibilities of CCF's intervention which were received by CIA affected the US political decisions about the Korean War greatly. These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US Government during the Korean War depended too much on the intelligence received from the FEC, and the FEC involved US policies.

As shown, distortions of intelligence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made failures in intelligence area, misinterpretation of the FEC(intelligence producer) and decision maker(intelligence consumer)'s misinterpretation were mingled. That is the reason why the US Government failed to predict the possibilities of CCF'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Even if we could say there were some distortions when centralized intelligence system which emerged after the Pacific War settled down, we could also say that these distortions of intelligence system was due to the FEC.

Key Words : The Korean War, The Chinese Communist Forces(CCF)'s Intervention, FEC, Intelligence Activities, Intelligence System,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NIE), Human-Source Intelligence, Communication Intelligence, Imagery Intelligence